

김영록 지사 “AI에너지 수도 마지막 퍼즐 완성”

인공태양연구시설 나주 1순위 선정

“역사적인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벅차

호남인 헌신·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도의회 “전남 성장경로 바꿀 대전환”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1순위 후보지 나주시 선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남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주시를

선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돼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벅차다”며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오늘을 준비해 온 전남의 저력을 또 한번 증명해 낸 위대한 성취이자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500만 호남인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언론인, 공직자, 향우, 과학계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20년 방사광 가속기 공모 당시 과기부는 나주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지질 안정성

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진정성에 감탄해 후속 추진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은 전남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평가에서도 나주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며 “부지 규모, 진입로, 전력, 상하수도 등 기본 요건은 물론, 부지 안전성과 확장성 등 입지 요건, 지자체 지원 체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 부합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임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몰려오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대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연

관 기업 300개 투자 유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 1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로 전력의 미래 해답이자 결정판이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이라며 “미국에서는 벌써 구글, MS 등이 상용화에 대비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이제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을 발판으로 전남과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AI 등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날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호남 전체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전남이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최종 유치되면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와 전남의 성장 경로를 바꿀 국가적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전남은 에너지 수도로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나주가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의 심장, 국가혁신의 중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혁신의 물결,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힘찬 미래를 열어나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국회 증액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뒤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 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비 10조 시대 연다” 막판 총력전

김지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SOC·국립김산업진흥원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 등을 만나 SOC를 비롯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증액 마지막 단계에 김 지사가 직접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가 된 지역

이고 지금이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10조원 예산 확보는 전남만의 목표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731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13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10억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5억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40억원) ▲전남도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5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해양·에너지·AI 등 국가 중장기 산업의 플랫폼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정부 예산안 반영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증액을 통해 전남형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전년보다 6% 증가한 9조4천억원의 국비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정성홍 前 전교조 지부장 “광주시교육감 출마”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 실현”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2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정 전 지부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해 ‘광주교육, 광주답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행교육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공약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기초학력 책임전담제 전 학년 확대 ▲진로·진학 통합지원기관 ‘광주미래나래센터’ 설립 ▲위기학생 지원 ‘24시간 부르미’ 제도 시행 및 ‘광주형 전환학교’ 설립 ▲AI선도 ‘광주형 미래학교 설립 및 ‘미래교육 특구’ 지정·운영 ▲‘급식 맛집’ 실현 ▲‘교육감 책임 소송



제’와 ‘교육민원 창구 단일화’ ▲교사 적정수업 시수 보장 ▲비정규직 교직원 처우·임금체계 개선 ▲광주교육 일자리 1만개 창출 ▲광주교육타운을 미팅 정례화 ▲시민참여기반 아시아평화학교 설립 등이다.

정 전 지부장은 36년간 중등학교 평교사를 지내고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시의회 특위·산학연 “국힘, AI 본예산 원안 처리해야”

광주시의회 인공지능(AI) 실증도시특별위원회와 광주 11개 산학연협의회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10조1천억원 규모의 AI 투자 결단을 내렸으

나,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무늬만 AI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치 공세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걸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근시안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 붕괴와 인재 유출을 초래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말라”며 “AI 예산을 삭감한다면 역사적 책임은 국민의 힘에 있으며 광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은진 기자

